

뽕배 레이싱·보물찾기...갯벌 즐기러 오세요

보성군 도시사배 뽕배대회
내달 12일 장암리 체험센터
21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

“뽕배 아시죠. 꼬막 캠프 타고다니는 거요. 뽕배로 레이싱 즐기세요.”

보성군이 다음달 12일 별교읍 장암리 뽕배체험관리센터에서 이색 레이싱 대회인 ‘제4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뽕배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레저 뽕배대회’는 보성의 대표적 특산물인 별교 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수단인 뽕배를 레포츠 장비로 개발해 정경갯벌에서 뽕배 레이싱을 즐기는 행사다. 뽕배는 지난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됐다.

이번 대회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별교 천상갯벌’을 주제로 뽕배레저 스포츠 경기



지난해 여름 열린 ‘제3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뽕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레이싱을 펼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등 4개분야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레저 뽕배 경기가 펼쳐진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중·고,

대학·일반부 등으로 나뉜 레이싱 대회를 연다. 부대행사는 어른제 간 단체 씨름, 갯벌 속 보물찾기,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대야 타기, 레저뽕배 무료 체험, 뽕배 제작 과정 시연이 마련, 몸으로 즐기는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했다. 전시 행사로는 갯벌 사진, 전통 뽕배 전시 등이 열린다.

또 대회 전날인 11일에는 별교읍사무소에서 뽕배 어업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어업 유산으로써의 가치와 역사적 고증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장도는 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돼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도 인근 갯벌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인 뽕배를 이용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제를 마련했다”며 “시원한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뽕배 대회에 온 가족이 참여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나 해양수산과(061-850-5432)로 하면 된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35% 공정률...고흥군 신청사 상량식

고흥군은 최근 고흥읍 남계택지지구 군청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상량식’<사진>(上樑式)을 열었다.

박병중 군수는 “신청사는 군민의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고흥의 랜드마크이자 사

람중심의 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신청사는 고흥읍 남계택지지구 구 일대 부지(면적 2만1685㎡)에 청사동(지하 1층·지상 6층)·의회동(지상 3층)이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474억원이다. 지난해 7월 착공,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군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단 운영

‘3~5세 어린이들이 할머니들이 책 읽어주는 소리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지긋한 듯한 실버 여성 봉사단들이 들려주는 ‘고 녀석 참 맛있겠다’를 들던 아이들이 순간 웃음을 터트린다.’

고흥군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책놀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 10명으로 이뤄진 실버봉사단이 지역 어린이들을 상대로 책을 읽어주는 행사로, 올 11월까지 열린다.

이들 봉사단은 지역 아동교육기관을 돌며 구연동화를 시연하는 강사로 활동

하게 된다. 어르신 봉사단은 ‘빨강 부채 파랑 부채’, ‘활활 간다’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책장을 덮은 뒤에도 어린이들이 떨어지려 하지 않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실버세대들의 인생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책 읽어주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 군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구례군 도로명주소 문패 제작 서비스

구례군이 도로명주소가 적힌 가족문패 제작 서비스<사진>를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군은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가족문패를 제작해주고 있다.

지난 2013~2014년 처음으로 8600여 세대에 문패를 설치한 이후 올해가 두 번째로, 문패에 가족 이름과 도로명주소를 기재해 택배·우편 등으로 전달하고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ijt@



보성스탬프 투어 앱 서비스 오픈 관광지 50곳 안내

보성군이 모바일 ‘보성스탬프 투어’ 앱을 오픈했다.

종이에 스탬프를 찍는 대신, 스마트폰에 옮긴 것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보성지역 유명 관광지인 한국차박물관, 태백산맥문학관, 득량만 바다낚시공원, 보성비봉공룡공원, 제암산자연휴양림, 울포관광단지, 득량 추억의 거리, 빛재, 흥암나철 기념관 등 50곳을 선정했다.

관광객이 투어장소를 방문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방문 인증 스탬프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해당 장소에 대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보성군은 내년 1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보성스탬프 투어 관광객 18명을 추천, 보유 스탬프 상당의 농·특산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 숙박업소나 음식점 정보도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에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원추리꽃 활짝핀 지리산 둘레길 구례 섬진강 서서천변 지리산 둘레길이 여름철 야생화의 대명사인 원추리 꽃으로 물들고 있다. 원추리꽃은 구례군 용방면 지용관~서서천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까지 4km에 걸쳐 피어 여행객들을 맞고 있다. <구례군 제공>

곡성군 압록 유원지 일대 ‘참게·은어 거리’ 조성

상징물 설치 등 환경 정비

곡성군 압록유원지 일대는 섬진강이 품어내는 참게와 은어를 맛있게 끓여내고 튀겨내는 식당들이 즐비하다.

‘섬진강 별미’로 손꼽히는 참게매운탕과 은어튀김 등으로 유명한 곡성군 압록유원지 일대가 ‘참게·은어 거리’로 본격 조성된다.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납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인 ‘압록·참게

은어 거리’ 세부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곡성을 비롯, 순천(웃장국밥거리), 광양(불고기파크), 보성군(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완도(전복음식명가) 등 5곳을 납도음식거리로 선정할 바 있다.

납도음식거리는 대표음식점 6개소 이상, 거리가 10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 이상 지역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곡성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도비와 군비 등 10억원을 들여 압록유원지 인근 1.6km를 지역 고유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당장, 거리 진·출입부에 은어·참게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13곳의 대표 음식점 안내판을 멋스럽게 바꾸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관광객들을 위한 거리공원도 만들기로 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kim@

“호텔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델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용자 8 ~ 10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무인텔

엘도라도 리조트 콘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3동), 객실 52개
- 리모델링후 연 순수익 3억 이상 가능
- 온천지구 내 “직업테마파크”등 600억 투자 예정
- 시세/감정가 - 60억
- 매매 - 42억
- 상담문의
H.010-6838-1230